

박영인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 회장



“GSM-102 자금은
한·미 양국에 모두
유익하죠”

지난 해 12월 외환 위기로 은행들이 사료곡물 도입을 위한 수입신용장 개설을 기피하자 축산업계는 큰 혼란에 빠졌다. 잘못하다가는 사료원료 도입이 중단돼 돼지 등 가축을 모두 굶기는 위험이 초래될 지도 모를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사료원료 재고가 30여일치 밖에 남지 않았고, 일부 사료회사에서는 배합사료 생산량을 줄이기까지 했다.

이러한 와중에서 한미 양국 정부는 숨가쁜 협상을 전개, 미농무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GSM-102자금을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도입에 지원하기로 긴급 합의함으로써 가축을 굶기는 일은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사료원료 수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독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의 공식적인 협상과 관련, 미농무성의 GSM-102 자금이 제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워싱턴을 오가며 동분서주, 막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박영인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 회장을 지난 2월5일 만나 우리에게 생소한 GSM-102자금에 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미농산물 수출신용을 보증해주는 것이 GSM-102 자금

- GSM-102 자금이란 어떤
것입니까?

박 회장 : 흔히 GSM(General Sales Manager) 자금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미국의 농

산물 수출을 증대하고 수입국의 자금을 완화하기 위한 미정부의 수출신용보증 프로그램입니다. 대출하는 성격의 자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을 수입하는 나라의 외환사정이 어려워 외상 구입이 필요한 경우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외상 수출대금

을 못받을 수 있어 수출을 꺼리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대금회수를 보증해주면 수출업자는 마음놓고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농무성이 자국의 농산물 수출업자들에게 신용수출을 보증해주고, 수입국이 외상수입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GSM-102 자금입니다.

미국산 농산물 수출 증대하기 위해 GSM-102 자금 지원

- 미농무성에서 GSM-102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박 회장 : 이 프로그램은 미국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으로 이것을 운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 농산물 교역을 증대하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PL480"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 제정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1950년대 초에 미국은 잉여농산물이 많아 이를 처리하는 것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잉여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1954년에 "Public Law 480(농산물 교역증진 및 원조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에 의해 극빈국에는 잉여농산물을 무상으로 주고, 세계평화를 위한 먹거리(food for peace)로 사용하기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일명 식량원조법(Food Aid Act) 또는 평화식량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자금은 외교, 안보, 군사적인 배려하에 배정·사용되고, 농무성의 CCC(Commodity Credit Corporation)에서 취급합니다.

PL480과 우리 나라와의 관계는 6·25직후 한미간에 식량 원조에 관한 협약을 맺어서 한

국에 잉여농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한 데서 시작됩니다. 그후 미국 정부는 이를 장기 저리(10년 거치기간 2%, 40년 분할상환기간 3%) 신용공여로 바꾸었고 마침내 현금으로 거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한국은 이런 맥락의 중·단기성 GSM-102 자금을 사용해오다 96년부터는 정부의 외환관리상 이유로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계속적인 사용을 권고했지요.

한국에 총 11억불 지원- 사료원료용은 2억5천만불

- 그러면 한국에는 GSM-102 자금이 이번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박 회장 : 작년 12월 13일 한국정부는 미국에 16억불의 GSM-102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원래 이 자금은 신청에서 배정 결정까지 보통 수 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워낙 사정이 급박해서 신청한 후 몇일만에 10억불을 '98 회계연도(97.10-98.9)중에 사용토록 배정했습니다. 그후 2월에 원피 도입에 1억불을 추가해서 총 11억불이 지원됩니다.

품목별로는 옥수수과 대두박에 3억5천만불(이중 사료용은 2억5천만불이고 나머지 1억불은 가공용), 밀 1억5천만불, 콩 1억불, 원면 2억불, 원피 1억불, 육류와 원예 생산품 1억불, 예

비용 1억불입니다. 이중 1차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4억불이고, 나머지는 할당금액이 소진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추가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옥수수와 대두박을 도입하는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8천만불이 할당되었습니다.

연리 6% 미만에 외상 기간 24개월까지

- 금리와 상환기간 등 자금 사용조건은 어떻습니까?

박 회장 : GSM-102 자금의 금리는 리보(LIBOR) 금리에 0.3% 정도를 가산한 것으로 이자율이 매우 낮습니다. 요즘 리보 금리가 연리 5.6% 내외니까 총 6% 미만인 것입니다. 상환기간은 24개월까지이고 6개월에 한 번씩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면 됩니다. 한국의 현재 외환과 금리 사정으로 보아 매우 유리한 조건이지요.

미농무성에서 GSM -102 자금 98% 신용보증

- GSM-102 자금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예를 들어 국내 사료업체가 이 자금을 사용해서 사료원료를 도입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박 회장 : GSM-102 프로그램은 미농무성의 CCC/GSM(총판매 관리자)이 다룹니다. 이 자문에 의해 미국의 사료원료



GSM-102 자금의 추가 배정을 위해 축산업계와 정부의 꾸준한 로빙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박영인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 회장

(옥수수와 대두박)를 수입하는 절차는 일반 무역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다만 한·미 정부간에 합의한 품목 리스트에 따라 미농무성이 인정한 한국의 은행(현재 12개)을 통하여 L/C를 개설해야 합니다. 수출업자는 그 쪽 은행을 이용하여 미농무성에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자금은 선착순(fir-st come, first service)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CCC에서는 원리금의 98%와 2년간 발생하는 이자의 절반을 보증해 줍니다. 나머지 원리금 2%는 관련 은행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미농무성이 운용하는 이 자금의 총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박 회장 : GSM-102 예산은 총 60억불 가까이 됩니다. 멕시코는 작년까지 매년 13억불을

배정받았고, 금년에는 5억불로 줄었습니다. 기타 수십개국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입니다.

미국은 수출 증대, 한국은 외화 자금난 완화로 상호 이익

- GSM-102 자금을 지원하고 사용할 경우 한·미 양국에는 어떤 이익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 회장 :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미국은 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미국산 농산물 수출을 증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신인도가 높아지고, 외화난으로 중단되었던 은행의 수입신용장(L/C) 개설이 재개돼 필요한 때에 사료원료를 확보하여 배합사료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싼 금리로

최장 24개월까지 자금을 사용할 수 있어 사료회사 등 수입업체들의 자금난을 대폭 덜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아가 농가들도 사료를 구입할 때 현금 구입에서 외상구매가 다시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자금의 사용으로 사료, 양축, 가공, 유통으로 이어지는 축산 관련업계 전체의 자금난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금의 지원과 사용은 한미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외의존도 높아질 수 있는 문제점도

- 위에서 설명하신 대로 GSM-102 자금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 회장 : 물론입니다. 이 자금을 사용하면 장점도 있지만, 너무 오래 많이 사용하면 분명히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도 이같은 문제점과 폐단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생산자재 수입에 계속 사용할 경우 수입국의 기술개발과 부존자원 활용에 태만하게 되어 농산물 자급률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즉, 먹거리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또 다른 수출국들과의 무역 마찰 소지도 잠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로는 지금 긍정적인 측면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축농가, GSM-102 자금 혜택 스스로 챙겨야

-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에서 요청하지도 않은 육류와 과일 수입에 GSM-102 자금을 1억불이나 배정했고, 예비용 1억불도 육류수입에 추가 배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축산업계에서는 미국이 이 자율이 싼 자금을 육류 수출에 지원함으로써 국내 축산업을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박 회장 : 한가지 확실한 것은 GSM-102 프로그램이 미국의 전체 농산물 수출 확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축산 원자재 뿐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소비재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청하지 않은 것도 미국의 정책과 필요에 의해서 추가된 것입니다. 이 과제는 앞으로 양국간에 긴밀한 협의와 절충이 필요합니다. 양축농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스스로의 이익을 챙겨야 하겠지요.

사료용 원료 도입에 많은 자금 배정을

- 축산업계는 당초 사료원료 용으로 5억불을 요청했는데 2억5천만불만 배정되어 금액이 너무 적고 옥수수와 대두박 이외에 다른 품목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양축농가들은 어떤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박 회장 : 사실 사료용 원료 도입에 배정된 2억5천만불은 실제 소요액의 몇분의 일 밖에 안됩니다. 현재의 여러 사정으로 보아 사료원료 도입에 이 자금이 많이 배정되어야 할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지금 품목간, 업자간 이해가 워낙 첨예하여 명분에 따라 공정하게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GSM-102의 파이를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하는 분쟁의 가능성으로 보아 사료, 축산업계의 공동 대응과 선전을 기 대해 봅니다.

로빙이 필요한 세계화 시대

- 지금까지 GSM-102에 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후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와 대응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박 회장 : 이번의 GSM-102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의 신용수출 정책 자체가 한국의 당면 외환위기를 도와주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양측의 필요가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중순에 외환위험을 예견하고 미국의 여러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둔 것이 이렇게 잘 활용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최소한 이번의 외환 문제를 완전히 타개하기까지는 GSM-102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계는 하나, 시장도 하나, 한국의 농업 역시 이제는 성숙한 자세로 세계의 일원이 되어 실사구시(實事求是)하는 시각에서 자국의 이익을 챙겨야 될 줄 압니다. GSM-102에 관한 한 업계와 정부가 각각와 상탄에서 로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11억불에 이어 5억불쯤 확대하는 로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외환 관련 자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시간 GSM-102를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담·정리 : 김동성부장.

사진 : 이병석주임> **養豚**